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따뜻함

제목 : 5월 12일의 이야기.

오전에 친구들과 농구를 하였다. 첫수업이어서 를  
도 잘 모르고, 실력도 부족했다. 하지만 선생님과 친구  
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잘 할 수 있게 되었다. 농구  
는 농구공을 골대 안에 넣어야 한다. 단, 손을 제외  
한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이용하면 안된다. 슈팅 연습을  
하면서, 농구는 키가 커야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 
농구 게임을 하였다. 우리 팀에 처음 들어온 친구가 많아,  
조금 불리했다. 하지만 15:15로 동점을 만들었다. 아쉽  
게도 마지막에 상대팀이 3점슛을 넣어, 우리가 지게 되었다.

오후에는 농구를 마쳐 시원하게 샤워를 한 뒤, 도서관  
에 갔다. 책을 보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. 나는 여러  
명작들을 보게 되었다. 그중, 나는 '15소년 표류기'가  
가장 인상적이었다. 이 책은 15명의 소년이 항해를  
하던 도중, 폭풍 때문에 무인도에 떠내려와 모험을 하는  
내용이다. 이 15소년의 협동심과 모험심을 본받아야  
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

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으러 일산으로 갔다. 차를  
타고 1시간이나 걸렸다. 그 식당에서 푸짐하게  
나눠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.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 
하루 였던 것 같다.

농구 골대는 높이  
곳에 있기 때문에